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박 연 정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에 관한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398명의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의미의 학교준비도 척도에 근거하여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규명 및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량, Cronbach α ,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별 및 기질,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와의 공유시간 및 양육행동은 학교준비도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령 전 아동, 학교준비도, 기질, 양육행동

* 본 논문은 2008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이며, 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임.

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론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들은 주요 생활공간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적응을 요구하고 이런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신체·인지·언어·사회정서능력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Heavside & Farris, 1993;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1991; Rimm-Kaufman & Pianta, 2000; Zill, Collins, West, & Hausken, 1995). 즉,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owman, 2006)를 고려해 볼 때, 학교준비도는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준비도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준비도 측정에 관한 연구(Maxwell & Clifford, 2004)에 따르면, 학교준비도는 아동 자신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아동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발달하며, 특히 아동발달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환경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아동의 발달수준과 그 맥을 함께 하는 학교준비도는 아동발달이 여러 환경체계와 맞물려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교준비도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체인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그 외의 여러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변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에 관해 살펴본 연구(Williamson, 2003)에 의하면, 부모가 아동의 학교준비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부모는 교사보다 아동의 학문적 능력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부모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최초의 대상으로서, 아동 행동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며, 최초의 스승이라 할 수 있기에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준비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Janus & Duku, 2006)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준비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Brooks-Gunn & Markman, 2005)를 고려해 볼 때, 부모를 포함하는 가정환경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변인으로서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Maxwell과 Clifford(2004)에 따르면, 학교준비도는 아동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체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즉, 아동 자신이 지닌 특성변인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성별은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 구성요인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Zill & West, 2001). 한편 기질은 아동의 개인변인으로서 적응(송진숙, 2004; Cooney & Holmes, 1998)뿐 아니라 발달의 다양한 영역과 많은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고 아동의 성격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성연, 2002)를 고려해 볼 때, 기질을 포함하는 아동의 개인변인 또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개인 특성 및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생물학적 특성인 성별, 아동 고유의 특성인 기질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인 가정의 영향력이 큼을 고려해 볼 때, 부모 관련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어머니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아동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한계로 학습준비도

에 관한 연구(권영례 외, 1998; 김정권, 여광웅, 1978; 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8; 윤명희, 1995a, 1995b; 이금섭, 1986; 이연섭, 김성일, 1981; 이영석 외, 1993; 정계숙, 1986)가 주를 이루어왔다.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ready for school)를 의미하는 학교준비도와 학습을 위한 준비(ready to learn)를 의미하는 학습준비도는 모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신체적·사회적·정서적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정도라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학습준비도는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선수요인으로서 학습의 기초개념이 강조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7).

국내에서 학교준비도라는 이름 아래 실시된 연구는 척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은혜(1979), 김윤수(2003), 박연정과 정옥분(2008)의 연구 정도이고,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을 포함하고 현 시대상황을 고려하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학교준비도 척도에 근거하여,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별, 기질을 중심으로 한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 중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 등 부모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성별, 기질)과 가정환경변인(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차기년도 취학 예정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 경향,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용(동아일보 2006년 5월 10일자)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취학 예정 아동의 연령을 7세로 규정하였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취학 예정 아동 558명과 그들의 부모에 관한 자료를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기질, 양육행동 등의 관련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 52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3.6%), 부실 기재되거나 교사용과 어머니용의 짝이 맞지 않는 자료, 부자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자료, 연구대상의 연령이 맞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아동과 어머니 각 39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학교준비도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박연정과 정옥분(2008)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의 4개 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95, 검사-재검사신뢰도가 .72, 반분신뢰도가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95로 나타났다.

기질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천희영(1993)이 개발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뉴욕종단연구(New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8)

변인		대상자 수 (%)	
성별	남	201 (50.5)	
	여	197 (49.5)	
출생 순위	외동이	55 (13.8)	
	첫째	150 (37.7)	
	둘째	155 (38.9)	
	셋째 이하	33 (8.3)	
	무응답	5 (1.3)	
		부	모
부모의 연령	20대	4 (1.0)	8 (2.0)
	30대	238 (59.8)	331 (83.2)
	40대	148 (37.2)	57 (14.3)
	50대	5 (1.3)	0 (.0)
	무응답	3 (.8)	2 (.5)
		부	모
부모의 교육 수준	고졸	117 (29.4)	148 (37.2)
	2년제 대학 졸	80 (20.1)	111 (27.9)
	4년제 대학 졸	162 (40.7)	115 (28.9)
	대학원 이상	33 (8.3)	15 (3.8)
	무응답	6 (1.5)	9 (2.3)
		부	모
부모의 직업	생산기능직	88 (22.1)	9 (2.3)
	서비스직	28 (7.0)	13 (3.3)
	판매직	50 (12.6)	26 (6.5)
	사무직	78 (19.6)	35 (8.8)
	행정관리직	66 (16.6)	12 (3.0)
	전문기술직	29 (7.3)	37 (9.3)
	무직/주부	5 (1.3)	237 (59.5)
	기타	44 (11.1)	22 (5.5)
	무응답	10 (2.5)	7 (1.8)

York Longitudinal Study)의 9가지 기질차원을 요인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기질을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5개 요인, 33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가 .81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안지영(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방임적 허용, 통제 4개 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적극적 참여가 .76, 자율격려가 .73, 방임적 허용이 .69, 통제가 .6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5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취학 예정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를 중심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9월 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차기년도 취학 예정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기간은 학교 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기초하여 정한 것으로, 입학 전 6개월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실시기간을 9월 초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4개 하위요인별로 평균의 범위는 3.12~3.40이었고, 표준편차는 .40~.4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표 2.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n=398)

학교 준비도	단체생활 태도	정서교류 능력	일상생활 지식	학습활동 능력
<i>M</i>	3.16	3.12	3.40	3.31
<i>SD</i>	.48	.45	.40	.47

표 3.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t*검증

학교준비도	남아 (n=201)	여아 (n=197)	<i>t</i>
	<i>M(SD)</i>	<i>M(SD)</i>	
단체생활태도	3.01(.47)	3.31(.43)	-6.79***
정서교류능력	3.04(.43)	3.19(.46)	-3.25**
일상생활지식	3.33(.39)	3.47(.40)	-3.36**
학습활동능력	3.19(.44)	3.44(.48)	-5.56***
전체	3.14(.35)	3.33(.38)	-5.26***

** $p < .01$, *** $p < .001$.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하며,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지식($M=3.40$, $SD=.40$), 학습활동능력($M=3.31$, $SD=.47$), 단체생활태도($M=3.16$, $SD=.48$), 정서교류능력($M=3.12$, $SD=.45$)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t=-5.26$, $p<$

1) 각 하위요인의 문항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001).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단체생활태도($t=-6.79, p<.001$), 정서교류능력($t=-3.25, p<.01$), 일상생활지식($t=-3.36, p<.01$), 학습활동능력($t=-5.56, p<.001$)의 모든 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 반

응성, 정서성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성은 정서교류능력, 생리적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 반응성은 학습활동능력, 정서성은 정서교류능력,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적극적 참여 요인만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참여는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n=398)

		학교준비도			
		단체 생활 태도	정서 교류 능력	일상 생활 지식	학습 활동 능력
기 질	적응성	-.09	.15**	.04	-.01
	활동성	-.21***	-.01	-.11*	-.14**
	생리적 규칙성	.11*	.12*	.08	.10*
	반응성	.05	.04	.04	.13*
	정서성	.02	.11*	.08	.03
양 육 행 동	적극적 참여	.07	.14**	.11*	.13**
	자율격려	.01	.02	.01	-.02
	방임적 허용	-.08	-.08	-.02	-.08
	통제	-.03	-.00	.02	.03

* $p < .05$, ** $p < .01$, *** $p < .001$.

3.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 기질을 중심으로 한 개인변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가정환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준비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성별, 교육수준, 취업유무는 명목변수로 '0'과 '1'의 값을 이용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 3개의 가변

수를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urbin-Watson의 d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2에 가까워 잔차항 간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독립변인 간 선형관계 파악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 요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하루 중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이면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갖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각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단체생활태도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 및 활동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아이면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활동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 요인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별, 아동의 기질 중 적응성 요인, 하루 중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 요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이면서,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지식 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 3개의 가변수를 만들어 살펴본 결과, 여아이면서 아버지의 교육

표 5. 학령 전 아동의 성별, 기질,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R^2_{adj.}$	F
학교 준비도	성별	8.44	.30	6.02***			
	교육수준(부)	3.19	.11	2.26*			
	생리적 규칙성	.73	.11	2.08*	.14	.13	11.49***
	공유시간	-.66	-.12	-2.40*			
	적극적 참여	.45	.11	2.20*			

* $p < .05$, *** $p < .001$.

표 6.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R ² _{adj.}	F
단체생활 태도	성별	1.92	.33	6.54***	.16	.15	21.66***
	생리적 규칙성	.20	.14	2.83**			
	활동성	-.09	-.11	-2.08*			
정서교류 능력	성별	2.65	.22	4.28***	.10	.09	9.36***
	적응성	.20	.14	2.75**			
	공유시간	-.41	-.18	-3.36**			
일상생활 지식	적극적 참여	.21	.13	2.39*	.08	.07	9.64***
	성별	1.46	.20	3.88***			
	교육수준(부1)	1.22	.17	3.11**			
학습활동 능력	교육수준(부2)	1.44	.11	2.07*	.12	.11	16.15***
	성별	2.26	.29	5.83***			
	교육수준(부)	1.05	.13	2.67**			
	적극적 참여	.11	.10	2.00*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와 대학원 졸업인 경우,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활동능력 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인 참여 요인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이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지며, 어머니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차기년도 취학 예정인 아동을 중

심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갖춰야 할 요건인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 및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다음에서는 연구문제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논의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성별에 따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읽기능력 및 친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유치원 입학 시점에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에도 덜 관여한다는 연구결

과(Zill & West, 2001)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준비도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습준비도에 관한 최형윤(1997)의 연구에서는 운동 및 협응능력 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과의 관계, 변별력, 기억력, 이해 및 개념형성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준비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교준비도가 포함하는 요소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응성은 정서교류능력, 생리적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 반응성은 학습활동능력, 정서성은 정서교류능력,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자극 혹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개인 및 타인에 대한 정서표현, 이해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수면, 식사 관련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단체생활에서의 규범을 잘 지키고 정서교류를 원만히 해나가며 학습활동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학습능력이 높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질수록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정서교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움직임과 관련된 활동성은 낮을수록 단체생활에서의 규율을 잘 지키고 기초 지식 및 학습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의 하위구성요소를 통해 형성된 까다로운 집단의 아동들이 학교활동 시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Rubin et al., 2003;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Thomas, Chess, & Korn, 1982), 학교준비도가 학교생활 적응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Bowman, 2006;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수면과 식사 시간 및 양이 불규칙하고, 환경 변화에 매우 예민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학교준비도 점수가 낮으며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게 보고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조성연의 연구(2002)에 의하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개인/사회적 반응, 수 개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성은 수 개념, 감각 개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의 경우 성격과 학교준비도 각 하위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준비도의 성차에서 여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준비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그들의 학교준비도와 기질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참여만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친구사귀 기회 또한 만들어 주며, 전문가를 통해 자녀양육 관련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할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아동의 행동 및 사회성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박용임, 1998; Cassidy, 1988)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때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황정아, 2006)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부담을 지닌 어머니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갖춰야 하는 학교준비도 점수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지나치게 허용적, 통제적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극 개입할 때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기질을 중심으로 한 아동의 개인변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가정환경변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별,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준비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단체생활태도에는 아동의 성별,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과 활동성이, 정서교류능력에는 아동의 성별, 기질 중 적응성, 하루 중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일상생활지식에는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습활동능력에는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정계숙(1986)의 연구에서 성별이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준비도에 있어서의 성별이 갖는 영향력이 큼을 고려할 때, 각 성별 특성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준비도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질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Chess와 Thomas(1984)의 연구, 학교준비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Bowman, 2006;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를 조합해 볼 때,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단체생활태도에, 활동성이 단체생활태도에, 적응성이 정서교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과 식사와 양 및 시간이 균형을 이루고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성향이 강한 아동의 경우 단체생활에 있어서의 규율을 잘 지키고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교류능력은 개인 및 타인에 대한 정서표현과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기질의 적응성이 정서교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Janus & Duku, 2006)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준비수준이 낮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지식과 학습활동능력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습준비도에 관한 이금섭(1986), 정계숙(198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준비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학력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성연, 2002)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취업여성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취업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령 전 아동이 하루 중 어머니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은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가사노동의 자동화, 경제적 필요성,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9), 유아교육기관을 찾는 부모들이 증가하였고 장시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많아졌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나라 부모들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우남희, 2002), 자녀를 취학 전 다양한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반면 가정 밖에서 또래, 선생님과 같은 기타 성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줄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은 학교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기관에서 익힌다고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요인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윤은미,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이 유아의 정서표현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경량, 2004), 그리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적응성 기질과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결정성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주현, 이순형, 2009)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 사회적 능력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령 전 아동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준비를 잘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서표현 및

이해도 용이하며, 학습과 관련한 준비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개인변인뿐 아니라 가정환경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천적이고 변화 불가능한 변인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를 위해 부모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바람직한 개입을 통해 아동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좀 더 나타내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감정표현 및 이해능력이 높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지식이 풍부하며, 학습활동을 위한 기본능력도 보다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부적 상관을 보인다. 즉,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력은 정서교류능력,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학습활동능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정서교류능력 및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신체움직임에 관한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및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편 학령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 즉,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아동의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및 학습활동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셋째,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변인으로서의 아동 성별, 기질과 가정환경변인으로서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가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및 어머니 양육행동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인다. 특히 여아이면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갖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 및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하루 중 어머니와 자녀의 공유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내 준비도 관련 척도가 대부분 학습준비도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학습 관련 인지능력뿐 아니라 사회 정서발달, 운동신경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학교준비도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성을 고찰하며, 학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으로,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대도시 집단의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을 표집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도시 집단의 아동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아동들도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되거나 교사용과 어머니용의 짝이 맞지 않는 자료, 부자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자료, 연구대상의 연령이 맞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다보니 실제 분석에 포함된 자료가 상당 부분 손실되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학교준비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고려해 볼 때, 남녀 아동집단을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준비도 점수가 낮은 영역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재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학교준비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준비도가 낮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생각해 볼 때,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되 자율성을 격려해주며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례, 김암이, 곽혜경, 장미자 (1998). Phelps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PKRS)의 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3(2), 1-19.
- 김정권, 여광웅 (1978). 정신박약아동 판별연구: 1학년생 선별검사. 서울: 사단법인자행회.
- 박연정, 정옥분 (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 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1), 23-47.
- 박용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박혜정, 강혜원, 장명립 (1987).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 개발연구. 연구보고 RR 87-39. 한국교육개발원.
- 서주현, 이순형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조화적합성이 유동성 지능 및 결정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4), 47-71.
- 송진숙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남희 (2002). 한국인의 조기교육의 허와 실.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경량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희 (1995a). 유아학습준비도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3(1), 117-142.
- 윤명희 (1995b). 유아 학습준비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3(5), 333-352.
- 윤은미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섭 (1986). 가정환경변인과 학습준비도와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섭, 김성일 (1981).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연구(III)-학습준비도검사의 예비적 타당화. 연구보고 제134집.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석, 구학봉, 노명완, 김승훈, 차미정, 고승자 (1993). 계몽학습준비도검사 개발연구(연구보고 6). 서울: 계몽아동연구소.
- 정계숙 (1986).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사대논문집, 13, 109-127.
-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조성연 (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 천희영 (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윤 (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아 (2006). 어머니의 학교교육참여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ltes, P. B.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611-626.
- Belsky, J., & MacKinnon, C. (1994). Transition to school: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school experienc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 106-119.
-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 Brooks-Gunn, J., & Markman, L. B. (2005).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to ethnic and racial gaps in school readiness. *The Future of Children*, 15(1), 139-168.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hess, S., & Thomas, R. (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Y: Brunner/Mazel.
- Cooney, R. R., & Holmes, D. L. (1998). Can toddler temperament characteristics predict later school adap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human development*.
- Crnic, K., & Lamberty, G. (1994). Reconsidering school readiness: conceptual and applied perspectiv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2), 1-105.
- Hair, E., Halle, T., Terry-Humen, E., Lavelle, B., & Calkins, J. (2006). Children's school readiness in the ECLS-K: Predictions to academic, health, and social outcomes in first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431-454.
- Heavyside, S., & Farris, E. (1993). *Public school kindergarten teachers' views on children's readiness for school*.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Janus, M., & Duku, E. K. (2006). School readiness as the outcome of early child development: Relation to family factors. *ISSBD*. 국제학술대회자료집.
- Maxwell, K., & Clifford, R. M. (2004). Research in review: school readiness assessment. *Young Children*, 59(1), 42-46.
- Meisels, S. J. (1999). Assessing readiness. In R. C. Pianta & M. Cox (Eds.),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pp.39-66). Baltimore: Brookes.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1991). *Caring communities: Supporting young children and families*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School Readiness). Alexandria, VA: Author.
- Pianta, R. C., & Walsh, D. J. (1996). *High-Risk children in schools: Constructing sustaining*

- relationships*. NY: Routledge.
 -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1-511.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64-176.
 - Stams, G. J. M., Juffer, F., & van IJzendoorn, M. H. (2002). Maternal sensitivity, infant attachment, and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predict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case of adopted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ly unrela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806-821.
 - Thomas, A., Chess, S., & Korn, S. (1982). The reality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8, 1-20.
 - Williamson, D. E. (2003). Readiness for school: A study of parent, teacher, and preschool provider perspective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Zill, N., & West, J. (2001). *Entering kindergarten: A portrait of American children when they begin school. Finding from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Zill, N., Collins, M., West, J., & Hausken, E. G. (1995). Approaching kindergarten: A look at preschoolers in the United States. *Young Children*, 51(1), 35-38.
- 1 차원고접수 : 2010. 07. 07.
수정원고접수 : 2010. 08. 13.
최종게재결정 : 2010. 08. 30.

A Study o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in Korea

Park, Youn-Jung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readiness. Variables of school readiness including kindergarteners' gender and temperament, parents' educational level, maternal working patterns, kindergarteners' average hours spent with their mothers per day, and maternal parenting were investigated over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8 kindergarteners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the purposes of testing all the relevant hypotheses, a measure of .05 was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readiness by gender.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school readiness and temperament as well as parenting. In addition, kindergarteners' gender and temperament, paternal educational level, maternal parenting, and kindergarteners' average hours spent with their mothers per day predicted school readiness.

Key words : kindergarteners, school readiness, temperament, parenting